

부산대학교 53대 총학생회

제17차 확대중앙운영위원회

발신: 총학생회장

수신: 확대중앙운영위원회

일시: 2020년 5월 18일(화) 오후 19시

장소: ZOOM회의

기록물 책임자: 총학생회장 김태경

I. 출결 점검(가나다 순)

시간	총학생회 장		부총학생회장				간호대		경영대		경통대 (비)		공과대		나노대		동아리 연합회		사범대		사회대	
	김태경		이대훈				정	부	정	부	정	부	정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19:00	o		o				o	o	x	o	o	x	x		o	x	o	x	o	o	o	o
시간	생자대		생환대		스포츠 과학부		약학대		예술대		인문대 (비)		자연대 (비)		정보의 생명공 학대		의과대		Pre 한의전		Pre 치의전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정		공석	정	부	정	부	정	부	
19:00	o	x	x	o	x	x	x	x	o	o	o	o	o		x	x	o	x	x	x	x	

재적위원: 36명 / 개의요건: 10단위 이상 출석 / 의결요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참관인 : 3명

※ 총 재석인원 : 20명

※ 조퇴 : 생환대 부(19:46)

II. 보고 안건

1. 총학생회 보고
2. 단과대학 보고

III. 논의 안건

1. 넥터 등 학내 야간음주에 관한 건
2. 마스크 배부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건

IV. 기타 안건

II. 보고안건

1. 총학생회 보고

- 5.11(월), 12(화) 영화단체관람 진행완료(비와 당신 이야기, 소울)
- 5.13(목) 부산대학교 개교75주년 ‘부산대를 찾아서’ 북콘서트 진행
- 5.15(토) 스승의날 현수막 게시
- 5.15(토) 온라인 대동제(온라인 방탈출 등 5개 모집시작)
- 5.18(화) E-Sports 예선 완료(총 16팀 참여)
- 5.21(금) 마스크 도착예정(3만여개)
- 6.4(금) 총장 간담회 예정
-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있는 단대 학생회 홈페이지 링크 업데이트 중(붙임1. 참고)

의장 : 현재 저희가 5월달에 온라인 대동제 기간으로 19년도까지는 원활하게 진행했던 대면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분들에게 행사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연구한 결과 이번에 저희가 온라인 대동제를 진행함으로써 든 예산이 저희가 최 30-4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상품 비용들이고 최대한 다른 업체와 함께 진행하지 않고 저예산으로 진행을 했었고 할당된 부분들은 혹시 하반기 때 대면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대면 행사 때 학생회에 할당되어 있는, 흔히 교비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할당해서 집행하거나 만약 그때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그쯤 전부터 해서 단대 회장님들과 국장님들과 논의를 진행해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좀 규모 있게, 알뜰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영화 단체 관람을 진행했습니다. 영화 단체관람이라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도 생각했을 때 학우분들이 느끼기에 걱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영화관에 약 160석에 할당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연초에,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구매했으나 미처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올해 활용했습니다. 한번은 무료로 진행이 됐는데 약 160석을 미리 예매한다는 개념으로 영화 단체관람을 학우분들께 미리 홍보해서 진행했습니다. 총 양 일간에 걸쳐서 250명 정도가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단체관람에는 최대 270석 정도 빌려서 이제 약 2칸씩 뛰어 앉는 조건으로, 그리고 일행에 한해서 2명까지만 같이 앉을 수 있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진행했습니다. 입구에는 집행부 약 4명 정도가 체온측정, 소독부터 확실하게 해서 진행해서 잘 마무리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5월 13일에는 부산대학교가 올해가 75주년입니다. 저희가 최초의 국립대학이자 개국 이래 최초의 대학이기도 합니다. 맞이해서 66학번 선배님부터 현재 부산시 시의원 하시는 정치외교학과 96학번 선배님과 함께, 총학생회장 저 총 4명이 북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저희 발전기금을 내주시고 부산대학교 총장님, 전 총장님, 인사들을 모아서 부산대학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행을 했고 개교기념식은 13일을 시작으로 3일간 진행했습니다. 아마 오프라인으로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 많은 홍보가 된 건 아니라 학우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75주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선배님들과 대화를 했을 때 선배님들께서 당부드린 게 학생회에게, 학생에게 당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75주년을 왜 기리는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속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역사를 잊거나 관심이 없거나, 또 부산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면 결국 우리가 선배가 되었을 때, 저희 세대 또한도 나중에는 후배들에게 잊힐 수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학생회에서는 과거의 아픈 부분들을 기린다는 생각만 해줘도 많은 의미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북 콘서트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긴 한데 직접 다 보실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부분들은 결국 선배님들이 부산대학교에 가지는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껴왔거든요. 한 가지 정도만 저희가 기억해도 될 거 같은데, 저희도 결국 졸업했을 때 부산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는 끝까지 저희의 모교로 남을 텐데 저희도 언젠가 사회로 나가게 돼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했을 때 돌아보면 후배들은 그것만큼 기뻐할 수가 없고 선배들 입장에서 그런 선배들을 한 번 정도 더 떠올려주는 거 만큼 기쁜 건 없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제 정계 쪽이든 큰 뜻을 가지고 총학생회장에 나온 것은 절대 아니지만, 무엇이 됐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저희의 개교기념일이기도 하고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토요일에 학생과를 통해서 현수막 제작해서 게시를 했고 저희는 문창회관에 상주하고 게시는 경비원분들께 감사의 뜻으로 카네이션에 꽃다발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기점으로 온라인 방 탈출 등 온라인 대동제 5개의 프로그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오늘까지 이제 이스포츠 예선 완료가 되었고 온라인 방 탈출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스포츠는 저희가 총 32팀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대학원생 등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팀들이 있어서 사전 공지처럼 팀이 정해져 있어야 진행할 수 있어서 선착순으로 16팀 받아서 현재 예선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21일에 마스크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주문했던 부분은 3만여 개 정도 도착할 예정인데 생각보다 마스크가 결제 라인을 통해 늦게 도착한 만큼, 논의안건 2번째 때 아마 논의하겠지만 언제쯤 배부를 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소모할 것인지, 즉 어떻게 배포하고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총장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장님과 저번 주 목요일에 북 콘서트를 진행하며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고 학기 초에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으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작 총장님과 만날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을 빌려 비교적 가볍게 식사 자리 통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아마 총학생회 국장단과 저와 부회장님이 만나게 될 텐데 가서 이야기할 때 혹시 또 총장님께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든지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얘기할 수 있는가든지 있으면 저에게 이 시간이든 다른 시간이든 얘기를 해주시면, 물론 너무 깊은 얘기인 경우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참고를 해서 잘 풀어서 여러 가지 질문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학생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단대 학생회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보시다시피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있는데 단과대학 학생회를 클릭하게 되면 각 단과대학에서 설정한 홈페이지 링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현재 작년 기준이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가 이동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가 생기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각 단과대학에서 확인해주셔서 링크를 알려주시면 소통정보국을 통해서 링크 트리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대 회장님께서서는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예술대는 수정이 아마 먼저 될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 보고는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단과대학 보고(가나다 순)

간호대학 학생회	보고안건 없음.
경영대학 학생회	보고안건 없음.
경제통상대학 학생회	보고안건 없음.
공과대학 학생회	
나노과학기술대학 학생회	스승의 날 맞이하여 카네이션, 롤링페이퍼 전달 완료, 관련 사진 업데이트, 맛집 탐방 행사 진행 중
동아리 연합회	보고안건 없음.
사범대학 학생회	부산대 부산교대 통합 관련 대응방안 논의 완료, 학생회 평가 분석 보고 완료, 5/28 현직교사 초청 강연회, 온라인 사진대회 준비 중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보고안건 없음.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	통학버스 관련 설문조사 다음주 진행 예정
생활환경대학 학생회	보고안건 없음.
스포츠과학부 학생회	
약학대학 학생회	
예술대학 학생회	5/14까지 아트부산 입장권 배부 완료, 14일 12시 코로나 학생회 입장문 써서 전달, 5/18 예술대 내 식사 관련 답변 전체 공유, 17 단운위 내에서 학과 단위로 과 회장님들께 입장문 전달할 수 있도록, 5/30까지 답변 받아와달라고 요청
인문대학 학생회	보고안건 없음.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5/24 자연대 출범식 대체 행사 예정
의과대학 학생회	보고안건 없음.
pre-한의학전문대학원과 정 학생회	
pre-치의학전문대학원과 정 학생회	

III. 논의안건

- 넉터 등 학내 야간음주에 관한 건
- 마스크 배부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건

1. 넉터 등 학내 야간음주에 관한 건

의장 : 혹시 오늘 중으로 문자 다 받으셨습니까? 문자 내용을 보시면 넉터와 넉터 앞 농구장이 있는데 그 앞에 의자가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을 폐쇄를 해야 할 거 같다고 학생과에서 요청이 와서 이제 아마 회장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밤 되면 넉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앞에 스탠드 쪽에 많은 학우분이 앉아서 간단한 음주나 모여서 높은 소리로, 실제로 최근에 스탠드에서 몸싸움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나가고 난 이후에 소리가 들렸는데 싸움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학생과랑 논의 하다 보니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이 부분들을 보고안건에 올려서 전달해드리려 했는데 그래도 논의안건에 올려서 혹시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이 없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현재 넉터나 이런 것들은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는 빨간 테두리를 뒤서 아마 폐쇄가 될 거 같은데, 혹시 회장님들께서 넉터 말고 학교에 야간에 오신다면 어디에 학우분들이 주로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다 돌아볼 수는 없었어서, 회장님들 학생회실 근처나 밀양 캠퍼스나 양산 캠퍼스는 10시 이후에 학내로 들어와서 야간 음주를 하거나 고성방가 같은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 : 사회과학대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어서 학생회 차원에서 순찰 같은 걸 할까 했는데, 사회대 앞에 예원정이라고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곳이 조금 야간음주 장소로 되더라고요.

의장 : 제가 생각했을 때 예원정이 사실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밤에 예쁘거든요.

사회 : 원래도 코로나 전 시기에도 밤에 음주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거든요. 특히 여름 되면 심한데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저희도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의장 :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행정실이나 따로 논의를 진행한 건 아직 없죠?

사회 : 논의는 안 했고 저희 학생회에서 꾸려서 밤에 5분 정도만 왔다 갔다 해볼까 하고 학생회 회의에서 말은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의장 : 실제로 학생회 차원에서 계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회장님들께서 생각이 많으실 거 같아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될 거기도 하고 갈등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단대별로, 단과대학 앞에 건물별로 다 정원이든 쉼터가 있다 보니까 계도 활동을 하게 될 때는 저희 단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협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실제로 대학본부 총무과랑 논의했을 때 계도 활동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돌 순 없는데 아마 넉터를 순찰하다 보니까 더 안으로 파고들어 가는 게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두 찾거나 확인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 생각에 지속적인 캠페인과 카카오톡 단톡을 통한 안내 문자 정도를 지속적으로 보내드리는 게 그나마 효율적인 부분인 거 같은데 다른 회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혹시 생자대 회장님 밀양캠퍼스는 혹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생자 : 밀양은 열 시 제한이 없이 술집이 계속 열려있어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의장 : 그럼 양산 캠퍼스도 제한이 없나요?

의과 : 네, 양산도 열 시 이후에 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의장 : 저희가 이제 5월 23일, 이번 주가 되면 다시 한번 더 방역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번 주가 끝나게 되면

다시 방역지침이 내려오게 되는데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코로나 확진자 수부터 보거든요. 이제 알겠지만 계속 700-500명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번 주가 예측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거 같은데, 제가 일단 회의 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총학생회에서 가끔씩 내리는 단체 문자나 단체 공지 카톡 말고도 단대 차원에서 학과에 뿌리는 문자나 단대 경우 같은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같은 입장을 공유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 속에 이제 안내 이런 것들에 대해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 문자라든지, 학과 차원에서 학과 단톡으로 뿌려지는 문자가 지속해서 계속되어야 할 거 같고, 추가로 생각했던 부분이 마스크를 배부하면서 또 학생분들에게 말로 방역수칙에 대해서 지켜달라고, 라이트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그런 배부로 구입을 진행하게 된 건데 1번 논의안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고 2번 안건으로 이어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2. 마스크 배부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건

의장: 저희가 마스크 배부가 총학생회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나머지 병행해서 단대 일정 개수 전달해드리면 단대 차원에서 방식을 논의하고 진행하셔서 단대 차원에서 몇 개를 주고 학과 차원에서 주고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아까 생각이 든 방법은 혹시 야간에 간단하게 계도를 하게 될 때 학생과에 마찰이 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밝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난 게 마스크를 주면서 캠페인을 하면서 학우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방금 들었거든요. 실제로 총학생회 차원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학우분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 특히 저희는 낮 시간대에 오래 진행을 할 거 같은데 저희도 진행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할 거 같거든요.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고 열 시 이후에 행동하면 안 된다는 매뉴얼들은 정해져서 집행부들이 나눠줄 거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학생들을 강제하거나 체포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말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말로 했을 때 학우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때 당시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의 관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게 아니면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게 마스크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방법은 방금 제가 생각난 부분이고 저희가 21일 금요일에 마스크가 도착할 거 같습니다. 이 마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주말 중으로 저희가 개수를 나누고 배분을 진행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마 24일부터 다목적실에 마스크가 단대별로 분할이 되어있을 겁니다. 총학생회가 공식적으로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가 항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 시간대에 오면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장전에 일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밀양과 양산에 전달되는 방법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마스크 1,000개가 얼마만큼 부피를 차지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택배를 부치는 방법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저희 총학생회 택배비 예산을 항상 예비비로 잡아두는 게 있어서 택배비를 통해서 생자대와 양산 캠퍼스에 그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마스크와 동시에 L자 파일에 관련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파일은 조금 더 늦게 올 거 같아서 아마 화요일 이후에 오게 되면 이제 월요일부터 수령하실 때 시간이 딜레이 될 거 같고 너무 늦게 수령이 되면 6월 둘째 주부터는 시험 기간에 돌입되어서 함께 배부하거나 나눠드리는데 제약이 있을 거 같아서 지금 한번 여쭙보고 싶은데 회장님들께서 나눠주실 때 마스크만 나눠주시는 게 편한지 아니면 L자 파일도 같이 수령해서 나눠주시고 싶은지, L자 파일이라 하면 이제 이렇게 생긴 파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이제 방역수칙에 대해서 조금 적혀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희 총학생회에서는 이 L자 파일에다가 3개씩 끼워서 전달해드리면 읽어 주든지 주면서 방역수칙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혹시 마스크만 배부하는 게 나오신지, 같이 받고 싶으신지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24일부터 마스크는 바로 배부할 수 있고 L자 파일은 25일 이후에 올 거 같아서 이제 따로 받으실지 아니면 그 이후로 수령해도 괜찮은지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범 : 큰 무리 없으면 마스크랑 L자 파일이랑 같이 배부해주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 : 파일은 전단지처럼 취급될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의장 : 예술대 회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L자 파일만 배부하지는 않을 거고요. L자 파일은 저희 입장에서 파일 클립이 많기도 하고 이후에 제휴 카드나 자취 가이드북을 끼워서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서 제작한 거거든요. 연초에 자취 가이드북이랑 신입생 가이드북을 배부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것만 드릴 때 두 개를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또 L자 파일이 있으면 마스크도 끼워줄 수 있고 자취 가이드 북도 끼워줄 수 있고의 용도로만 될 거 같아서 마스크랑 같이 배부하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필요한가 안한가에 대해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 하면 개수는 넉넉하다 보니까, 굳이 필요 없으신데 L자 파일을 같이 배부해드리기 위해서 하루, 이틀 지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범대 학생회장님께서도 딜레이가 되더라도 같이 받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범 : 덧붙이자면 이게 단순히 무료 나눔처럼 마스크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캠페인 형식이다 보니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려고 하면 마스크만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런 코멘트가 적혀있는 물건이랑 같이 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의장 : 네, 제가 봤을 때도 같이 일하는 집행부 분들께서도 마스크만 들고 있으면 조금 머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가지 염두해주셔야 할 거는 마스크 따로, L자 파일 따로 가기 때문에 집행부 내에서 파일 안에 마스크를 직접 삽입을 하시고 배부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만 장을 36명이 다 넣어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단대별로 개수가 넉넉하게 배분이 될 거니까, 지금은 기말고사 전이니까 6월 초나 5월 말에 진행하시고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 보관해뒀다가 2학기 때에는 자율적으로 필요할 때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2학기 때 한번 지금처럼 다 같이 진행하는 시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마 5월 25일에 저희가 오후 중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정리해서 26일부터 수령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빠르면 26일이라는 겁니다. 변수가 생겨서 27일에 도착을 하면 하루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래도 괜찮으시면 제가 시험 기간이 26일이라고 하더라도 3주 전이거든요. 2~3주 전이니까, 그러면 26일에 L자 파일까지 같이 한 번에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캠을 켜신 분들은 제가 얼굴을 보면서 고개 끄덕이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캠을 끄신 분들은 채팅창에 쳐주시면 회장님들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마 마스크가 회장님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많이 갈 겁니다. 많이 갈 거라서 이제 열심히 나눠주시고 나눠 주시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돼서 마스크를 자주 가져야 할 것이거든요. 그때도 잘 쓰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배부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최대한 26일부터는 저희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실 2층 다목적실에 넣어둘 테니까 3층에 오셔서 단위 말씀해주시면 저희 집행부가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서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논의 안건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46 생환대 부 퇴장

IV. 기타안건

1. 다음 확운위에서 논의할 사항

- 추가하시고 싶은 사항?

사범 : 질문 사항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임시선별소 설치해서 대학원생들 전수조사 실시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로 본부 측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신지 여쭙보려고 합니다.

의장 :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불러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최근 대학원생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확진자의 거의 95%가 다 대학원생이고 1명만 학부생인데 이제 이것들이 왜 발생하는 건가에 대해서 보건당국과 코로나대책실무위원회가 분석을 한 결과 너무 상주 된 인원들이 많고 식사나 이런 것들을 대학원 안에서 진행을 하고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는 게 많아서 한번 감염되었을 때 그 감염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산대학교 내 실험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내에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의무적으로 모두 맡게 되었습니다. 의무적이라기보다는 다 받아라고 문자가 갔는데 그 중 이제 총 1,352명이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추가로 선별진료소는 이제 저번 주를 기준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철수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더 이상 대학원생 확진자가 발생이 되지 않고 학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부산대학교가 전국 국공립대학교 중에서 가장 많이 단기간에 발생했더라고요. 전북대학교에서 5월 8일 국공립 회의를 갔다 와서 각 학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데 간단하게 전달해드리면 충북대가 한 달에 11명이 발생을 했는데 부산대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결국 발생을 하더라도 추가로 대량 확진이 발생이 된 게 아니고 학부생 확진자가 드문 편이고 강의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다행이다라고 스스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학생처에서 지금 정보화본부와 같이 계획해서 제작 하고 있는 큐알코드 시스템 등은 완성이 되지 않아서 저희에게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코로나 관련해서 보고는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1. 총학생회 홈페이지 내 단과대학 링크

총학생회
공지사항
커뮤니티
학생복지
주요사업
편의정보



부산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
한 : 결
하나 되어 나아가는 학생회!



HOME
커뮤니티
단과대학학생회
인문대학

- 기본 + ☆

커뮤니티

홍보게시판
총학생회 SNS
학생귀의보호위원회

인문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경제통상대학

경영대학

약학대학

생활환경대학

예술대학

나노과학기술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간호대학

의과대학